

국통 73-1-

後進國民族主義와  
社會構造分析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2.

研究機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研究責任者： 권 태 환

# 目 次

序 論	3
第 1 章 殖民地的 經濟構造	6
第 1 節 殖民地的 後進性의 概念	6
第 2 節 殖民地的 經濟構造	8
第 3 節 後進国 工業化의 問題	11
第 4 節 經濟的 民族主義	13
第 2 章 歪曲된 社会構造	20
第 1 節 殖民地的 社会構造의 三類型	20
第 2 節 二重社会構造의 分析	23
第 3 節 社会的, 文化的 民族主義	27
第 3 章 殖民地 民族主義	36
第 1 節 後進国의 近代化理念 序說	36
第 2 節 殖民地民族主義의 歷史的, 社会的 本質	38
第 3 節 殖民地民族主義의 展開形態	49
第 4 節 指導理念의 精神革命	59

現代의 이른바 後進國民族은 그 大部分이 西歐 先進國의 帝國주의 政策下에서 강압과 수탈에 진음해 受 植民地民族이다.

이들 植民地民族은 解放과 獨立을 爲하여 勇부림 奮으니, 그것이 바로 植民地民族主義 運動인 것이다.

이같은 植民地各國의 民族主義運動은 第2次 大戰後에 이르러 비로소 그 成果를 거두기 始作하여 오늘날 植民地民族은 거의 모두 獨立을 獲得하기에 이르렀다.

植民地民族은 獨立이냐말로 帝國주의적 帝國주의의 撤去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獨立은 바로 그들의 幸福을 約束하는 것이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 繁榮을 意味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福祉社會의 到來를 意味한 것은 아니었다.

이같은 變遷과 더불어 後進國民族은 그들이 遂行해야 할 使命 課題 즉 近代化 革命과 後進性 克服이란 課題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植民地民族主義도 또한 獨立을 위한 民族主義는 產業 革命의 指導理念으로서의 이른바 獨立을 위한 鬪爭의 民族主義로부 터 그것은 課題解決을 爲한 指導理念으로 轉換한 것이다.

序 論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先進社會의 科學은 개성社會의 보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결과. 그 科學이 徇照的인 傾向으로 흐르고 이른바 존재하는 것 (Sein)의 分析에만 終始하기 마련이지만, 後進社會의 科學은 혁신과 建設을 問題삼는 實踐的인 傾向에서 존재하는 것의 分析뿐만 아니라 同時에 존재해야 할 것 (Sollen)을 추구하는 科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實踐的인 傾向의 後進社會의 科學은 社會現象을 實踐狀況에 있어서의 형성연관 관계로서 계층해야 하는 것이니 Sein과 Sollen은 相互 실천적인 連관에서 계층되어야 한다.

즉 Sein은 Sollen과의 관계에서 分析되어야 하며, 반대로 Sollen은 Sein과의 連관에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이같은 실천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제 측면이 종합적으로 統一되어서 이룩된 狀況인 것이므로 그같은 狀況에 있어서의 社會現象의 형성연관 관계의 추구는 社會의 제 측면을 統一的으로 계층하려는 이른바 統一的 社會科學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現代 後進社會의 科學은 사회표면현상의 계량화를 일삼는 Behaviorism만으로서서는 될수 없으니, 統一社會科學의 實踐的인 입장에서 社會現象의 狀況的인 형성연관 관계를 정치사회학 내지 정치철학적인 接近法으로써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本 論文은 이같은 接近法에서 現代後進社會의 狀況分析과 더불어 그 실천적 이념의 추구를 試圖한 것이다.

경제학적 接近法의 지적하고 이른바 先進國의 問題라는 것은 다만 “자원의 저개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경제적 후진성 (economic backwardness of people)의 問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같이 經濟學的인 見地를 넘어서 社會經濟學的인 立場을 취하는 「민트」는 자원의 저개발과 주민의 후진성과의 사이에는 필접한 關係가 있으며 그것은 또한 相互 惡循環을 거듭함으로써 後進狀況을 惡化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전기한 經濟學的 接近法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후진국의 問題를 다만 저개발의 問題로서만 규정함으로써 後進國問題의 核心을 은폐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리하여 그는 後進地域의 經濟開發의 問題를 低開發國 (Under-developed Countries)의 問題로서 接近하는 經濟學的 立場을 止揚하고 後進國 (backward Countries)의 問題로서 社會經濟學的 立場에서 할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後進國의 問題를 단순한 저개발성의 規定에서 後進國의 問題로 認識의 進展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後進國의 問題는 經濟社會學的인 接近方法으로서도 밝혀질 수 없는 핵심 問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現代의 後進諸國은 서구 先進國의 제국주의정책에 의하여 16세기 중엽이래로 漸次 植民地化 되었던 나라들로서 植民地 宗主國의

이같은 狀況에서 그들 先進國은 強大한 軍사력을 背景으로 한 國家 권력으로서 植民地의 經濟構造를 宗主國 자본주의의 생리에 알맞도록 强압적으로 變型하여 종속시켰던 것이다.

즉 식민지 國家의 經濟構造는 一分에 있어서 植民地 宗主國에 대하여 食糧과 公業원료 및 安가의 勞動力을 供給하고 또한 다른 立場에 있어서 宗主國의 公業으로부터 産출되는 公業제품을 소화하는 市場이 되겠끔 變型된 것이다.

그리하여 植民地 國家의 經濟構造는 食糧과 原料를 生産하는 제 1 차 산업 부문과 植民地 宗主國의 市場으로서의 제 3 차 산업 부문이 압도적 順位인데 비하여 제 2 차 산업의 公業 부문은 尙무하기 짝이 없는 畸形적인 構造가 되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國 名	제 1 차 산업	제 2 차 산업	제 3 차 산업	年 度
인 도	51 %	16 %	33 %	1950
버 여 마	46 %	12 %	42 %	1951
파 키 스탄	60 %	7 %	33 %	1950
인 도 네 시 아	54 %	12 %	34 %	1951
캄 보 디 아	57 %	7 %	36 %	1951
태 국	57 %	15 %	28 %	1950
니 제 리 아	68 %	3 %	29 %	1954
자 유 중 국	34 %	19 %	47 %	1951
한 국	47 %	9 %	44 %	1953

(United Nationd : Statiistical Yearbook, 1960).

단일재배의 例로서 「베트남」의 米穀, 「말레지아」의 고무와 주석, 「버마」의 주석과 「티이크」材, 「세일론」의 차와 「코코넛트」, 南「아프리카」의 煙草, 「니제리아」의 「코코아」, 「케니아」 「우간다」, 「수단」의 棉花, 「코코아」등을 들수 있다.

그런데 이 단일배제에 健全되는 人員이 보통, 총전강수의 70% 내지 90%가 되며 그 所得이 國民總所得의 60%내지 70%를 차지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배제의 생산물이 自然기후의 恣意에 지배될 뿐만 아니라 強大國의 가격 또는 세계시장의 경기 변동에 의하여 混淆되고 있으니, 그들 後進國의 經濟狀態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감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 第3節 後進國 工業化의 問題

위에서 植民地的 經濟構造의 大단을 論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부극된 經濟構造를 어떻게 바로 잡아서 近代化된 均衡있는 자립적인 構造로 變換할수 있을 것인가, 現代 後進國의 經濟構造가 植民地的으로 부극된것은 先進宗主國의 強압과 經濟的인 압력에 의하여 단일지배를 포함하는 제1차산업과 제3차 산업이 기형적으로 팽창한데 비하여 제2차산업은 전연 發展될 수가 없었다는데 由來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부극된 經濟構造를 바로 잡기 위하여서는 先進宗主國으로부터 政治的으로 獨立해야 할 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바이너」 Jacob Viner 는 後進國에 있어서 經濟發展을 爲하여 人爲的으로 公업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主張하면서 위속한 經濟發展을 爲하여 가장 將來性이 있는 分野는 오히려 농업분야이니 농업의 發展을 爲하여 힘쓰는 것이 더욱 더 効果的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Jacob Viner”의 見解는 後進社會의 그 植民地的 後進性의 왜곡된 性格을 政治經濟的으로 把握하지 못하고 다만 經濟學的인 接近方法에서 그 皮相的인 低開發性에만 留意함으로써 이룩된 謬見이 아닐수 없다.

現代 後進國은 前述한것 처럼 宗主國의 植民地主義에 依하여 생산성과 건강율이 가장 높은 公업부문의 發展이 人爲的으로 저해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원과 실업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植民地的 後進國이 그 실업을 一掃하고 近代社會로 轉換하자면 「바이너」의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人爲的으로 그 發展이 저해된 公업부문을 세삼스럽게 人爲的으로 發展시키는 公업 革命이야말로 말로 필연 불가피한 작업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바이너」 Jacob Viner :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Jacob Viner Trade.

#### 第 4 節 經濟的 民族主義

제 2 차 大戰後 後進諸國은 모두가 形式的으로는 政治的 독립을

다. 이같이 後進國은 우선 그 공업화를 위한 자본 습득에 있어서 許多한 難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難關이 되고 있는 자본획득의 問題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問題라 하더라도 現象的인 次元의 問題에 關해서 본질적인 次元의 기본적인 問題는 아니다.

後進國 工業化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問題는 經濟的인 主体性 確立의 問題이며 또 나아가서는 공업화, 즉,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經濟原理와 經濟構造에 關한 問題이다.

이와같은 基本的인 問題가 確立된다면 政治的 經濟的 獨立을 犧牲하지 않고서도 외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이요, 그 외의 각종 「딜레마」도 또한 時間問題로서 그 해결이 可能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後進國의 經濟的인 주체성 確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問題가 되는 것은 그 植民地時代로부터 독립후에 이르기까지 종속하여 作用하고 있는 「민트」의 이론바 불평등화 요인 (disequalizing factors) 이다. : (H. Myint: "An Interpretation of Economic Backwardness,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VI No).

불평등화 요인은 先進國과 後進國을 불평등하게 만들어 가는 抑壓, 제국主義的 支配에 依한 政治的인 抑壓 그리고 자본 技術, 經驗等의 優越性에 입각한 經濟的인 抑壓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요인들은 後進國에 對하여 相互 相乘的으로 또 積極적으로 불리하게 作用하여, 後進國으로 하여금 先進國과의 경쟁에서 불

장 큰 경향은 均衡잡인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 필항불가한 國民的 經濟的 統合을 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 하고, 獨立한 後進國은 國家가 주동이 되어 經濟的, 社會的인 제요인에 對한 組織的인 간소를 통하여 그 阻礙되었던 國民的 經濟的 統合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된 국가계획의 열행에 의하여 비로소 後進國에 作用하고 있는 불평등화 요인은 저지될 수 있으며 그 植民地的 後進性도 打破될 수 있는 問題라 하면서 그 국가계획의 원리로서 合理的인 民族主義를 提唱한다.

이처럼 「민트」나 “Gunnar Myrdal”은 불평등화 요인에 對抗하는 주체적인 理念으로서 經濟的 民族主義의 確立을 제시하고 있는데,

植民地的 後進國이 民族主義에 입각하여 그 政治的인 獨立을 達成한 오늘날에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經濟的 獨立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民族主義의 經濟理念을 採択해야 한다는 것은 必然的인 사리라 할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또 後進國에 있어서 역할은 經濟의 구체이념으로서의 民族主義와 關連하여 그 經濟主體의 역할은 國家가 담당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後進國의 個人企業家は 國家의 基幹産業을 經營할 자본과 經驗을 지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다.

불평등화 요인의 作用에 依하여 그들은 外國자본의 變증자본으로

替할 唯一한 政治形態로서 자기주장을 하게 될른지도 모른다.

( W.W.Rostow :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 A nonco -  
mmunist).

주의사회 “ ( animported Western Capitalism) 와 “전자본주의적 농촌사회” ( A precapitalistic agrarian Community) 가 각각 고유의 상이한 社会經濟体制로서 同時に 共存하고 있는데 그것은 完全한 異質的인 관계의 “二重構造” 라는 것이다.

先進國의 同質的 社會도 近代化의 過程에 있어서는 과도적인 形態로서 “자본주의화한 도시사회” 와 “자본주의적인 농촌사회” 가 同時に 並存하였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內面的인 社會發展의 巨視的 과도적 形態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우케」의 이른바 이중사회라는 것은 그같은 社會발전과정에서 있어서의 巨視的 過渡的 形態의 二重社會가 아니고 過渡的인 移行性을 지니지 않은, 完全히 異質的으로 並行하는 二重社會를 말하는 것이다.

植民地의 토착적인 社會는 外來적인 社會体制의 近代化的 分析作用에 對하여 異質的으로 對立하면서 토착社會의 周圍에 있어서 間의 分析作用이 進行됨에도 불구하고 그 核心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고유의 体制을 고수하려는 傾向을 나타낸다.

이같은 對抗的인 자기보존의 傾向은 그 近代化的 分析作用이 外來적인 侵略性을 內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傾向이라 하겠는데 先進國의 식민지 제국주의는 征服者的인 격탕을 加함으로써 토착社會의 停滯性을 더욱더 硬直化시키고 植民地의 後進社會를 辟가 通하지 않는 이질적인 二重構造로 부곡시켰던 것이다.

貫通함으로서 分析作用을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多人種社會는 閉鎖的인 二重社會와는 그 性格을 달리하여 開放的, 分析的인 것이 그 特徵이라 하고 있다.

## 第 2 節 二重社會構造의 分析

植民地的 社會構造는 제국주의 세력의 征服者들이 強制移植한 近代的 외래적 요소와 토착사회라는 이요소간의 접촉과정에서 抵抗과 通하여 이룩된 社會構造이기 때문에 그 構造의 一般的인 特徵은 이중사회구조로서 把握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前述한것 처럼 植民地的 社會構造로서 二重社會 複合社會 및 다인종社會의 三重的 有形이 主張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二重社會構造의 理論의 말로 植民地的 社會構造의 가장 一般的이며 또한 本質적인 理論으로서 規定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생각할때 「인도네시아」社會에 있어서의 봉호와 「아랍」인의 經濟活動을 중시하여 그들의 활동을 独立的인 社會的 契機로 看做하고 그것과 「유럽」인 그리고 또 토착민과의 관계에서 三重的 複合社會構造를 主張한 「퍼어니발」의 理論은 皮상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이른바 동양외국인의 경제활동을 別個의 独立的인 社會契機로 보지 않고 그것을 다만 外래적인 자본주의체계의 파생적 또는 下請負械関으로 看做하여 이중사회 理論을 主張한 「부르케」의 理論이 後進社會의 構造를 깊이 파고 든 妥當한 理論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社会的인 욕망인 것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個別性은 共同性안에 미분화狀態인 것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개인 행복보다 家族의 幸福과 共同體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며, 個人의 주택보다도 寺院이, 부모다는 名譽가 이익보다도 權威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는 실습과 傳統이 支配하는 사회로서, 後進되어온 權威에 依하여 그 생활방향이 決定되는 「웨이버」 Max Weber 의 이른바 後進的 傳統的 支配의 사회이다.

이같은 村落共同體의 經濟는 自給經濟로서 土地가 가장 支配的인 생산요소이다.

土地에 對한 人口의 壓迫과 또한 均分相統制는 필연적으로 土地의 細分化와 그에 따른 零細耕作의 形態를 招來하여 자본화가 필연적이다.

이같은 농촌사회에도 우편산물을 売却하기 爲한 시장이 存在하는데 그 시장은 다만 近代的 意味의 經濟機構라기 보다는 村民의 社會交場과 같은 것이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자본주의적인 「아시아」농촌공동체의 特色에 對하여 도시는 토착내지 사층의 官소제지로 發達하여 소비도시적인 性格을 띠우고 있다.

一般的으로 「아시아」의 도시는 농민으로부터 入手한 물자를 一方的으로 소비하고, 또 농촌의 지주들이 그들의 收入을 가져다가 수약에 소비하는 소비도시적인 特性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소비도시에도 수공업은 發達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만 도시에

### 第 3 節 社会的, 文化的 民族主義

植民地的인 2중構造에 있어서는 植民地 지배계급과 토착인민과의 사이에 共同的인 社会意思가 成立될 수 없는 까닭에 植民地的 자본주의 社会와 近代的 토착사회는 상호할 수 없다는 社会的 高랑을 사이에 두고 이질적인 对立社会를 形成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을 經濟적으로 分析하면 2차산업의 欠如와 經濟的 增進의 증대는 植民地的 獨점 자본의 一방적인 침취와 더불어 토착민족의 총체적인 양극화와 자원화, 그리고 또 硬直化를 가져오고 地域적으로는 가변화를 도시화 近代的인 農村사이에 經濟적인 高랑이 생기고 이중 經濟社会가 굳어지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중사회, 이중經濟構造에 있어서, 同質社会로서 國民的 統合이 이룩되고 또한 산업화를 先進社会를 토대로 하여 이룩된 經濟開發의 公式, 즉 “일정율의 純投는 그것에 對應하여 일정율의 所得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따위의 技術的 방정식을 적용하여 경제계획을 입안하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전기한 관련신고서는 이와같은 무의미한 接近方法에서 作成되었는데, 그 보고서는 先進国에서 산출된 經濟적인 技術方程式을 그대로 後進国에 適用하여 人口 1人당 평균 자본필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計算한 投資數量에 依하여 人口 1인당 所得의 일정율의 증가를 꾀하는 經濟開發 계획을 입안하였던 것이다.

그 계획서는 세계 後進地域의 人民을 總體的으로 計算하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南, 중앙「아시아」), 일본을



社會의 硬直化와 均세를 조래하고, 經濟建設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社會的으로 均세를 파게 되었는데, 그 均세는 위에서 論한바와 같이  
 植民地 지배층과 토착사회는 이질적으로 처하게 되고 그 처상은  
 감염으로 말미암아 造作된 것이었다.

植民地的 後進社會에 있어서의 이종사회구조는 식민지 지배세력의  
 은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그 近代的인 농촌사회의 硬直化된 우선  
 라 하겠는데, 그렇다면 後進國의 特質인 이종사회의 均세를 어떻게  
 建設과 그 發展은 社會構造의 변형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프랑켈」 같은 학자들이 分析한 것 처럼 後進國의 經  
 구한 것이다.

그 國民의 統合의 원리를 전제 한 바와 같이 合理的인 民族主義에서  
 民의 統合을 이루는 일이 後進國 經濟開發의 전제조건이라 하면서  
 會의 經濟的으로서의 社會의 均세를 극복하여 社會를 同質化하고 國  
 結論的으로 「릴달」은 近代的인 토착사회의 硬直性을 타파하고 社  
 계 하는 것이라 한다.

facts)를 지지하여 後進國經濟의 尙尙적 策國적 發展을 불가능하  
 經濟擴張의 效果로서 이른바 遠心的인 經濟의 파급效果 (Spreader-  
 따른 前近的인 토착사회의 硬直化와 더불어 이루어진 社會的 均세는  
 「릴달」은 植民地的 後進國에 있어서 植民地的인 자본주의의 壓迫에  
 를 強調한다.

바와같이 「릴달」도 社會經濟學的인 觀點에서 社會構造의 變革問題

그런데 後進地帶 人民의 우수성은 그것이 植民主義에 依하여 硬  
化되기 이전부터 傳承되어 오고 있는 고질인 것이다.

「에어슨」 Rupert Emerson 은 후진지대 人民의 傳統的인 形態  
의 生活과 思考方式은 자기네의 생활환경을 好適하게 改造하여 가  
려는 능동적 創造的인 意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하  
고 있다.

또한 그는 서구의 산업혁명이 人間의 정신혁명의 產物이었다는  
사실에 감하여 「아시아」에 있어서도 社會의 經濟發展을 爲해서는  
민중이 타동적인 정신혁명을 이룩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기 않  
을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그는 機械와 技術의 移植과 그 効果的인 活用은 그  
것을 可能케 하는 정신적 協정과 社會構造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  
아시아」의 사실을 指摘하고, 社會의 經濟的 進歩에 關해서 비관  
적인 展望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에머이슨」의 見解는 肯定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첫째로 산업혁명은 그것을 可能케 하는 정신 世력사회구조가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는 點과, 둘째로 「아시아」의 민중은 그같은 준  
비를 爲하여 그 타동적, 綿念的인 停滯性을 清算하고 능동적, 창조  
적인 精神으로 스스로를 혁신하고 새로운 社會構造를 形成해야 한  
다는 點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민중의 그 硬直化된 歷史的, 閉鎖적인 停滯性  
을 어떠한 方法으로 清算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아」의 停滯性은 계절풍지대 (monson vegin) 의 그 특유

그런데 서구 先進國에 있어서는 이것을 歷史的 發展의 이단계의 作業으로서 遂行했 던것 이다.

즉 그 전제군주국가 時代 200餘年에 걸쳐, 民族主義에 立脚하여 중앙정권적인 統一國家를 形成하고, 그같은 民族統一 國家가 完成된 연후에 그 토대위에서 民主主義 혁명을 通하여 人民의 自由가 保障된 近代民主主義 國家가 이룩된 것이 었다.

이처럼 서구 先進國에 있어서 2단계에 걸쳐서 遂行한 統一과 自由의 問題를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해방된 後進國에 있어서는 그 이계급을 同時과정으로서 遂行해야 한다는 「디렘마」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과 自由를 同時과정으로서 遂行하려는 後進國의 지도이념은 단순한 民族主義 일수가 없는 同時에 또한 단순한 民族主義일수도 없는 것으로서, 民族主義와 民主主義가 統一된 理念, 이를테면 民主民族主義 (democratic nationalism) 같은 理念으로서 表現될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사실 後進國의 植民地 民族主義는 植民地 해방을 爲하여 부르짖었던 理念으로서 서구 先進國의 제국주의적 侵略的 民族主義인 專制的 또는 독재적 民主主義인 形態를 取함으로써 民主民族主義로 展開한다는 것이 그 필연적인 方向이라 하겠다.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統一, 그것은 또한 後進國의 그 고유의 民族文化와 서구 近代文化와의 統一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統一과 自由”의 同時實現問題는 이처럼 文化的으로는 동서문화

그러므로 기한산업 및 독점 자본 국유화정책, 保護貿易政策, 協同組合의 育成等 經濟的 民族主義에 立脚한 불평등화 요원의 排除와 방어가 필수 불가결한 問題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아울러 附記한다.

서 그 모든 先進國의 理念을 超克한 새로운 理念을 창조함으로써 先進國에 對한 정신적 주체성을 確立하는 것이 先決問題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에 그같은 새로운 방향의 理念이 形成되지 못할 경우, 現代 後進國이 정신적 植民地化를 청산하고 先進國으로부터의 불평등화 요인의 作用에 對抗하여 成功的으로 近代化를 완수하자면 모든 先進國의 理念에 對항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한 새로운 이념을 形成한다는 것이 그 선결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現代 後進國은 세계사에 있어서 最終的인 後進國이므로 그 새로운 理念은 先行된 모든 近代化의 理念을 超克하고 그 매듭을 짓는 理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같은 理念은 近代社會를 매듭짓고 現代社會를 始發하는 類의 理念이 되는 것이 라 하겠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져서 收奪과 虐待에 신음하고 있는 後進國民族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現代化의 理念에 立脚하여 그 後進性克服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것은 世界史에 기구한 「파라독스」(Paradox: 逆說)라 할 것이다.

現代 後進國의 이론마 植民地 民族主義는 이와같은 自覺에서 先進國의 모든 近代化의 理念을 超克함으로써 그것을 매듭짓고 現代化의 방향에서 그 이념관계를 展開해야 하는데 다음에 그것을 歷史的生成過程에서부터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際共產主義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世界的인 規模에서 이룩하자는 것으로서 植民地 民族의 해방을 達成하려는 植民地 民族主義와는 그 性質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際共產主義는 서구 자본주의의 打倒를 爲한 國際적인 運動으로서 植民地 民族主義 運動을 利用하려 들었으니 國際공산주의는 서구 자본주의계급의 手巾으로 부터 植民地를 조치하여 獨立시킨다면 그들 자본가 계급은 必然的으로 沒落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大體로 1920年에서 1930年에 걸쳐서 一部 植民地 民族主義 運動은 그같은 심산의 國際共產主義에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獨立을 達成하려 하였고, 그 結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 利用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 2차 世界大戰後 共產陣營의 세력이 強大하여져서 世界가 兩大陣營으로 分裂하고 共產主義自体가 제국주의적 性格이 노출됨에 따라서 植民地 民族主義 運動은 共產主義와 絶緣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러시아」의 共產主義는 제 2차 世界大戰後 그 제국주의적 性格을 노골화하여 주위의 약소국을 위성국화하고 許多한 분쟁과 비극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써 「러시아」의 共產主義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해방의 理想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와 같은 大陸國家의 後進性克服의 理想에 불과하며 또한 그들의 이른바 國際공산주의는 「슬라브」 民族의 세계제패를 위한 새로운 形態의 제국주의라는 것을 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 共產主義는 後進國에 있어서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의

獲得의 필요성, 인도수 및 仏敎의 兩大 「이데올로기」에 처한 불  
편부당한 寬容性등으로 分析한다.

그러나 이같은 分析은 주어진 조건의 分析에 불과한 것이고 後  
進國이 지향하는 目的과 의욕을 分析한 것은 아니다.

後進國이 지향하는 目的과 의욕의 觀點에서 생각컨대, 비동맹중립  
주의는 양대진영이 對立투쟁하는 국제정치의 바탕위에서 소극적으로  
는 스스로를 방어하여 그 自主獨立性을 確保한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모든 形態의 제국주의를 소멸시키면서  
도의와 광명의 平和를 促進하려는 意慾을 表明하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

植民地 民族主義는 국제정치사상에 있어서 이 처럼 비동맹중립주  
의로서 스스로를 表現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植民地 民族主義는 그  
理念의 本質을 어떻게 展開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음에 檢討할 필  
요가 있다.

「본」에서 Macmahon Ball 은 植民地 民族主義를 反抗的인 운동  
이라 規定하여 첫째로 民族自決과 獨立의 쟁취를 爲한 政治的 反  
抗운동이고, 둘째로 학대와 자원으로 부터의 解放을 爲한 社会的  
經濟的 反抗運動이며, 셋째로 「유럽」인 즉 白色人種에 처한 有色  
人種의 人種的 反抗運動이라 하고 있다.

植民地 民族主義는 先進國의 식민지 제국주의에 對抗하여 자주독  
립과 主權平等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出現했던 것인만큼,

「불」이 관제한 것과 같이 그것은 필연적으로 반항운동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또한 그것을 부정적 排他的, 對立爭鬪的

또한 植民地 民族主義는 階級社會主義 思想, 즉 노동자階級만을 絕對視하고 餘他的 階級 내지 계층을 無視하여 다국적인 階級社會의 形成을 強行하려고 하는 그 偏倚된 思想을 부인하는 것이다. 植民地 民族主義는 階級社會主義 思想, 즉 노동자계급만을 相對化하고 평등화함으로써 그것을 總體的으로 해방하고 그 해방된 機能

이다. 또한 植民地 民族主義는 自由民主主義를 다만 부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具體化함으로써 이른바 止揚하려는 것이요, 또한 「왓시즘」의 有機體說에 立脚한 狹義的이며 侵略的인 民族主義를 理性化하고 실화함으로써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克服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植民地 民族主義는 「왓시즘」이 獨재주의를 취하는데

다. 「왓시즘」의 全體主義는 有機體說에 立脚하여 全體앞에 있어서의 個人的 獨立性을 認定하지 않는 것인데, 植民地的 民族主義는 창조적 사회이론에 立脚하여 個人的 獨立性을 保障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社會的인 伸張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植民地的 民族主義는 自由民主主義에 있어서 처럼 個人을 存立하는 具體的인 個人을 自覺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民族主義는 民族의 全體社會를 有機的인 全體者로 規定하고, 그것을 絕對視하는 이른바 「왓시즘」의 全體主義와 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絕對視하는 抽象的인 社會의 概念을 排除하고 民族社會의 기반위에

말할 나위도 없다.



先進國에서 새로이 形成되고 있는 대중民主主義는 「부르조아」民主主義인 自由民主主義를 초극하려는 새로운 民主主義로서 계급주의를 거수한 國民主義의 기반 위에서 民主主義를 철저하게 또한 完全한 形態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民主主義는 民主主義를 철저하게 또한 完全한 形態로 이룩하기 爲하여 議會民主主義의 確立을 통하여 독점자본을 統制 내지 국유화하고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先進國에 있어서 이같은 대중民主主義의 기초세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부르조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階級 사이의 中間에서 새로이 形成되고 있는 이른바 「화이트·칼라」(White Collar)의 신중간계층이다.

그런데 後進國에 있어서 그 植民地 民主主義를 담당할 社會의 주도세력을 亦是 前述한 바와 같이 中間계급의 沒落과 더불어 새로이 形成된 신중간층인 지식층인 것이다.

이와 같은 分析에서 後進國의 植民地 民族主義는 그 理念의 方向에서 또한 그 담당세력에 있어서 先進國의 대중 民主主義와 同一한 것인데 다만 後進社會와 先進社會의 歷史的 과정과 社會發展의 차이에서 그것이 後進國에서는 植民地 民族主義로서 表現되고 先進國에서는 대중민주주의로서 表現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植民地 民族主義와 대중民主主義는 다 같이 「부르조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계급의 對立,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對立 그것의 世界的인 展開形態로서의 兩大陣營의 體制的 對立이라는 同一한 世界史의 基盤에서 창조되고 있는 새로운 생활이념으로서 그

「모스크바」에서 국제공산당大會를 開催하고 新生獨立 民族主義 政權을 共産化하기 위한 過渡段階 政府形態의 理論的 「모델」로서 民族的 民主主義國家 ( National democratic state )의 形態를 規定하였던 것이다.

「소련」共産黨은 新生獨立國의 民族主義 政權을 無條件 그같은 民族的 民主主義 國家로 規定한 것이 아니요, 그 新生獨立國의 政權의 反「유럽」的, 비동맹주의, 서방측의 經濟的 영향력의 極小化, 自主的인 國家經濟 發展, 공산당에 對한 寬容이라는 條件에 合當될 경우에 한해서 公産化의 進단계로서의 民族的 民主主義國家로 規定하여 그것을 支援하고 있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이와 같은 「소련」공산당의 戰略에 對하여 中공의 모택동은 反對하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은 그의 저서 「新民主主義」에서 後進國을 共産化하는 過渡段階의 形態로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數個의 혁명적인 階級的 연합 獨재의 공산당이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소련」공산당의 中립주의 新생國에 對한 協助와 援助政策에 反對함으로써 그것이 또한 이른바 中, 「쑤」理念紛爭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中·「쑤」理念紛爭이 있든말든 그것과는 별도로 新生獨立國의 民族主義 政權에 對한 「소련」공산당의 民族的 民主主義 規定은 왜곡된 規定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前述한 바와같이 新生國 民族主義政權은 植民地 民族主義에 立脚한 政權으로서, 植民地는 이른바 「화이트·칼라」의 新중간층을 그 社會的 基礎세력으로 하여 共産主義의 「프롤레타리아」계급주의를

### 第3節 植民地 民族主義의 展開形態

前節에서 植民地 民族主義의 本질이 世界的 潮流에 制約되면서 植民地的 後進國의 歷史的 社会的 特殊性을 반영하여 独自の인 理念으로 形成되고 있는 過程을 高찰하였다.

그러나 那같은 植民地 民族主義의 本질의 전개는 客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高찰에 불과한 것이고 그 主體적인 측면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

現代 後進 各國은 그 植民地 民族主義를 世界史의 制約과 社会的 特殊性을 반영하여 대중民主主義의 방향에서 새로운 「패턴」의 民主主義 形態로 전개하고 있으나,

다만 那같은 民主主義의 主體적인 정신적 토대는 각 民族의 文化的 전통에서 구하고 있다.

民主主義는 언제나 일정한 主體적인 정신적 토대 위에서 이룩되는 것이다. 하겠으니, 서구의 이른바 자유民主主義도 「웨에바」 Max Weher 가 해명했듯이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基督教의 정신적 토대 위에서 이룩된 民主主義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서구 民主主義에 있어서 그 제도와 技術은 빌려올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 정신적 토대는 移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後進國이 그 植民地的 民族主義를 民主主義의 形態로 전개하려 할 경우, 民主主義의 제도와 技術면에 있어서는 서구 文化를 받아들일지언정, 主體적인 정신적 토대위에 있어서는 그 문화적 傳統에서 독자적인 사상을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원함으로써 「힌두」 교의 진정한 종교정신을 顯彰하려한 것이었다.

이들은 「베에다」야 말로 神의 영원한 별이라 하고,

그것은 종교적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들은 그같은 「베에다」의 理性的인 해택에 입각하여 「힌두」 교를 과학적 정신과 배치되지 않는 근대종교로 개혁하였으며, 또한 人間性의 회복을 고창함으로써 그것을 近代人間의 종교가 되겠음 조직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개혁된 「힌두」 교는 人間性의 회복을 고창하였지만 그러나 서구에 있어서 처럼 개인주의의 人間의 존엄성을 고창한 것이 아니고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단위로서의 人間의 존엄성을 고창하였던 것이니, 이점에 있어서 서구 個人主義思想에 처한 인도의 공동체제 사상의 特異性을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종교개혁운동과 더불어 또한 「차탈지」 Bankim Chandra Chatterji, 시성 「타골」 Sir Rabindranath Tagore 등 거구들이 나타나 전통인도사상의 부흥운동을 이룩함으로써 인도민중에게 民族的인 정세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19세기 초두로부터 시작한 정치개혁운동과 「힌두」 문화의 부흥운동은 20세기의 「간디」 Mahatma Gandhi, 「네루」 Pandit Jawaharlal Nehru 등의 政治的 民族主義 운동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인도의 民族主義 운동은 제 1차大戰後 「간디」를 지도자로 하여 대중운동화하고 치열의 도를 기하였으며 그 운동을 드디어 제 2차

사할 權威는 신성한 信託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파키스탄」은 회교의 종교정신에 立脚하여 건국하고 있지만 그러나 「알리·카안」 Liaquat Ali Khan 이 지적하듯이 이 른바 신정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고 회교의 종교정신을 새로운 「패턴」의 民主主義理念으로 發展시켜서 近代的인 民主國家를 建設하려는 것이다.

#### ④ 「파키스탄」의 회교民主主義

(Islamic democracy)는 단순한 政治的 民主主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經濟的, 社會的, 즉 실질적 民主主義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그 헌법 전문 제2항에서 「파키스탄」은 「사회정의의 회교의 制원칙에 기초를 둔 民主國家임을 선언하고 있다.

⑤ 회교원칙에 입각한 社會主義의 구체적 내용은 그 헌법 제3부 중의 제29조에 規定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으로서 부. 생산 수단 및 분배의 소수자에의 집중방지, 강제적 社會保險에 依한 社會保障의 공고등을 들 수 있다.

⑥ 회교정신을 새로운 民主主義 이념으로 發展시키는데 있어서는 종교혁명운동이 先行되어야 했던 것이니 19세기 초두 (사이도·아흐마드·카안 “ Sayyid Ahmad Khan (1889 ~ 1898)에 依한 回教의 淸敎的인 개혁과 近代운동이 있었고 20세기에 이르러 “모함 아도·이끄말” Mohammad Ighal (1873 ~ 1938)에 依한 回教精神의 近代哲學的인 해명과 人間해방의 民主的인 원리의 개명이 있었던 것이다.

⑦ 「이끄말」은 그의 저서 「回教에 있어서의 종교사상의 개조」

議會政治의 충단을 가져오고 「아유브·카안」 Ayub Kahn 장군의 군부독재정치를 등장시켰던 것이다.

「아유브·카안」 장군은 군부혁명의 最終目的은 國民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國民에 봉사할 수 있는 民主主義를 회복하는데 있는 것이라 성명하고 이른바 기초적 民主主義 ( basic democracy ) 의 제도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기초적 民主主義의 제도는 「파키스탄」 國民의 85%가 문맹이며 또한 촌락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감하여 종전의 전국적 국회의원 선거를 정지하고 이중적인 간접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 및 大統領을 선출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의 기초 민주주의는 政治文化의 수준이 저급한 나라에 있어서 불가변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같은 제도는 민중의 정치문화의 향상과 더불어 止揚되어야 할 과도적 단계의 民主政治 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에 또한 같은 回教徒 사회인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스카르노」 Sukarno 大統領이 非宗教的인 近代國家의 建設을 志向하며 1945年 건국의 기초로서 5대 원칙, 즉

- (1) 신에의 信仰
- (2) 民族主義
- (3) 人類主義
- (4) 民權主義
- (5) 社會的 正義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서 선출되는 직능대표간에 진근대적 공동사회의 결의 形式인 “고통, 로용” 的인 協同一致를 求하려는 것이니 그것은 이율배반의 불가능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교도민주주의는 허다한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같은 교도주의적 近代的인 이익사회 구조에 있어서는 원리적으로 成立될 수 없는 協同一致를 교도성의 입장에 서서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을 民主主義 보다도 獨裁主義가 되기 마련이다.

이상에서 인도, 「피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문화진통에 입각하여 식민지 民族主義의 本質을 전개함으로써 形成하려하고 있는 새로운 「패턴」의 民主主義를 論評하였는데 여지의 아. 제국들도 그 정치문화가 저급되며 비록 처음부터 民主主義 형태를 通하여 그 植民地 民族主義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으로서 그 志向하는 바 방향은 새로운 형태의 民主主義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Gotong Rojong 의 民主主義는 相互協力的인 精神土台 위에서 「무샤와라」 (musjawarat : 相互間的 이야기) 와 「무파캇드」의 방법에 의하여 즉 相互 이야기 함으로서 意見一致하는 方法에 의하여 모든 紛爭을 해결하는 民主主義를 意味한다.

(가) 民主主義를 실현할 수 없는 狀態에 놓여 있는 제국에 있어서는 次善의 길로서 군부가 독재정권을 樹立하고 植民地 民族主義를 새로운 形態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미개한 民族의 보편적인 路線으로 되어 있다.

(나) 植民地 民族主義는 비록 과도적으로 독재체제를 취하고 있

#### 第4節 指導理念과 精神革命

前節에서 植民地 民族主義의 전개 形態를 論하였는데 植民地 民族主義는 後進各國의 전통적 文化와 서구 民主主義 文化를 融合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民主主義를 志向하여 발전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傳統的 文化中에서도 特히 그 傳統的 宗教가 새로운 生活形態의 立脚할 精神的 土台로서 役割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즉 「힌두」教, 또는 回教社會에 있어서는 宗教가 민중의 生活를 統制 指導하는 權力으로서 歷史的으로 確立되어 있는 것이니, 그와같은 宗教에 민중을 統一하는 權力을 구하고, 또한 그 宗教의 近代化를 適用하여 精神혁명과 새로운 生活形態를 이룩하려고 한 것이다.

문맹률이 80%를 넘는 後進社會에 있어서 理念的인 近代化보다도 宗教生活의 近代化를 통한 精神혁명의 수행과 後進性 克服을 도모한다는 것을 가장 効果的인 방법일 뿐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宗教를 통한 민중의 統一과 教導는 또한 결점을 수반하는 것이니, 그와같은 宗教에 민중을 統一하는 權力을 구하고, 또한 그 宗教의 近代化를 통하여 精神혁명과 새로운 生活形態를 이룩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宗教를 통한 민중의 統一과 教導는 또한 결점을 수반하는 것이니,

첫째로 宗團主義 (Communalism)에 立脚한 민중의 배타적인



「이데올로기」時代의 終焉이라는 말은 「아롱」 Raxmand Arom이 그의 「知識人の 阿片」이라는 저서의 結論에서 論한 말이다.

이같은 「아롱」의 말은 後進國에서 輸入된 先進國의 이론바 「비헤이비어리즘」(Behaviorism : 行態主義)의 科學思潮와 더불어 相乘作用을 일으켜서 물지각한 後進國의 「인텔리」의 流行語가 된 것이다.

그같은 「아롱」의 말은 「아롱」自身이 弁明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에 依하여 그릇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 誤解되고 있는 중요한 點을 「아롱」自身의 弁明에 따라 요약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 「이데올로기」의 終焉이라는 論說을 從來의 觀點에서 본다면 社會主義的이라 看做될 수 있으리 만큼 社會化가 進行된 社會로 發展된 서구사회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이데올로기」인 自由主義의 主張이나 또는 「프로레타리아」·「이데올로기」인 自由主義와 共產主義의 主張은 다같이 과거와 같은 正열적인 매력을 喪失하고 있다는 것을 論하였을 뿐인데, 그 「이데올로기」의 終焉이란 말이 서구사회가 다른 모든 思想에 對하여서까지도 無關心해 지고 있다는 意味의 말인 것처럼 誤解하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로 「이데올로기」의 終焉은 서양사의 한 국면, 즉 先進社會 狀態에 국한해서 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산업化가 이룩되지 못한 近代化하고 後進社會에까지도 擴大해서 主張하는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의 요해는 「비헤이비어리즘」의 科學的 思潮와 迎合해서

산업혁명에 앞서서 遂行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課題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은 自由民主主義, 共產主義와 同一한 次元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規定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客觀的인 科學的 理論으로서 看做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도 본장 제 2절에서 論한바와 같이 이른바 新중간계층을 그 기반계급층으로 하고 지식층을 그 實踐的인 주도세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니, 一定한 社會的 存在에 定礎하는 理念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른바 (Seinsyehundenheit)의 制限을 超克하여 形成되는 理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같이 植民地 民族主義의 理念이 一定한 社會계층에 定礎하여 그 계층이 意志的 定向을 반영함으로써 一定한 社會的 存在에 依한 超包括性에서 초탈하지 못하고 있는 理念인 限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的인 理念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일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植民地 民族主義 理念의 社會的 基반으로서의 新중간계층은 그것을 先進國社會에서 考察한다면, 그와같은 계층은 이른바 絶對적인 양대계급 즉 「부르주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계급과의 中間에서 새로이 形成되고 있는 계급으로서 그 양대계급과는 社會的 志向을 달리하고 있는 社會계층인 것이다.

自由民主主義, 共產主義등과 같은 次元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規定될 수 없는 새로운 高차적인 科學적 理念으로 形成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植民地 民族主義 理念이 「이데올로기」를 超克하려는 새로운 高차원적인 科學的 産業혁명의 基초공사로서의 理念이라 할진데, 「아롱」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宗말을 主張하고 그것과 代替的으로 科學的인 理念인 始發이란 口號를 高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宗말이 「비해이비어리즘」의 思潮와 迎合하여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科學的인 理念마저도 포함한 思想一般의 宗말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그같은 「이데올로기」의 宗말이란 말은 「아롱」의 淸구한 바에 따라 沒知覺한 誤斷으로서 排除되어야 한다.

더구나 現代 後進國에 있어서는 民衆의 精神혁명이야말로 그정 淸혁명과 産業혁명의 基초공사로서 그들이 遂行해야 할 가장 基本的인 課題가 되어 있는 것이어늘, 어찌 科學的인 指導理念이 高唱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실 現代 後進國에 있어서는 植民地 民族主義의 科學的인 이념 체계의 形成과 그와 같은 理念에 立脚한 民衆의 登高전세적인 課題가 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으니, 現代 後進國은 民主共和國을 實現하기에 앞서서 우선 思想共和國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 하겠다.